

제일모직, 디자이너 3명에 30만달러 지원

제일모직은 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삼성 패션디자인펀드(SFDF)를 설립하고 1회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11월7일 발표했다.

첫 대상자는 바나나 리퍼블릭 디자이너 등을 거친 두리 정과 캐시미어 니트로 유명한 미국 TSE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출신 리처드 최, 도나 카란이 주목하는 신인 디자이너 박고은이다.

제일모직은 주 활동지역이 해외인 한국인 혹은 교포 디자이너 중에 개인 컬렉션을 시작한지 5년 이하의 신인이면서 창의성, 비즈니스 역량, 스타성을 고루 갖춘 사람들을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은 미국과 이태리 등에서 활동하는 3명의 패션쇼와 이벤트 활동 등을 위해 앞으로 1년간 10만달러를 제공하고 이후 1년마다 심사를 거쳐 최장 5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제일모직 제진훈 대표는 “SFDF 선정자들은 조금만 지원해주면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할 역량을 지닌 사람들로 당장의 이익창출과는 관계없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피해해진 우리나라 패션산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11/08>